

##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 김시습

고전소설

2015학년도 EBS 수능특강 A형 외 다수

## ■ 줄거리

송도에 사는 이생(李生)이라는 총각이 학당에 다니다가 노변에 있는 양반집의 딸인 최씨녀를 알게 되어 밤마다 그 집 담을 넘어다니며 애정을 키워갔다. 아들의 행실을 눈치챈 이생의 부모가 이생을 울주(울산)의 농촌으로 보내 버리자 둘은 서로 만나지 못해 애태우다가 최씨녀의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양가부모의 허락아래 혼인을 하였다.

이생이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행복이 절정에 달하였으나 홍건적의 난으로 양가 가족이 죽고 이생만 살아남아 슬픔에 잠겨 있는데 죽은 최씨부인이 나타났다. 이생은 그가 이미 죽은 여자인 줄 알면서도 열렬히 사랑한 나머지 의심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 수 년간을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날 최씨부인이 이승의 인연이 끝났다고 사라지고 이생은 최씨부인의 뼈를 찾아 묻어준 뒤 하루같이 그리워하다가 병을 얻어 죽었다.<sup>1)</sup>

## ■ 핵심 연구

- 갈래 : 한문소설, 전기소설, 염정소설, 시애소설, 명혼소설
- 성격 : 전기적(傳奇的), 낭만적, 비극적, 환상적
- 배경 : 시간 - 고려 공민왕 때, 공간 - 송도(개성)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특징

① 유불선 사상의 혼합 -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정을 그린 작품으로 전반부는 이승의 현실적인 사건을, 후반부는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세계를 그린 작품으로 현실적으로 좌절된 사랑을 귀신과의 사랑으로 바꾸어 성취시켰지만 결말에서 작가는 이생의 재회가 허무하게 끝나도록 해 놓은 것은 불교적인 무상관을 반영한 것이다.

② 만남과 시련(이별)이라는 서사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됨

③ 비현실적이고 신이(神異)한 내용을 다룸

④ 한문 문어체를 통한 미시적인 표현이 많이 보임

⑤ 삽입시를 넣어 산문 문학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구성(사건 구조)

| 구성 | 중심 내용                   | 구조  |    |
|----|-------------------------|-----|----|
| 발단 | 이생과 최랑의 만남과 사랑          | 전반부 | 만남 |
| 전개 | 이생 부모의 반대로 인한 일시적 이별    |     | 시련 |
|    |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에 이름     |     | 만남 |
| 위기 |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이내의 갑작스런 죽음 | 후반부 | 시련 |
| 절정 | 살아 있는 이생과 죽은 아내의 재회     |     | 만남 |
| 결말 | 이생과 아내의 영원한 이별          |     | 시련 |

- 의의 :

- ① 최초의 한문 소설집인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 중 하나로 조선 시대 한문 소설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줌.
- ② 몽유록계 소설의 원류가 됨

- 주제 :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

## ■ 구절 풀이

1)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 ■ 작품 해설 1

이 작품은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수록된 다섯 편 소설 중 하나로, 작품의 제목인 ‘이생규장’은 ‘이생이 담장 너머를 엿보다’는 의미이다. ‘이생’은 ‘이씨 성을 가진 학생’이란 뜻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흥건적의 난을 기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현실에서의 사건으로, 유교적 관습을 뛰어넘어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후반부는 최씨녀의 환생과 이생과의 사랑이라는 전기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현실적으로 좌절된 사랑을 귀신과의 사랑으로 바꾸어 성취함으로써 사랑의 의미를 더욱 애뜻하고 절실한 것으로 그려 내고 있는 것이다.

<지학사, T-Solution 문학 자료실 참고>

## ■ 작품 해설 2

‘이생규장전’은 중세 전기 서사 문학의 흐름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인 “소설의 출현”을 이해하기 위한 제재로 중요성을 지닌다. 이 작품은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로 원본은 전하지 않고 일본 동경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작자의 소설집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용궁부연록’,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만복사저포기’와 함께 실려 있다.

당시에 이 작품이 창작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원초적인 설화로부터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어 온 문학사적 전통과 함께, 조선왕조의 새로운 지도 이념에 부합하는 주리론적 통치 이념이 대두되자 여기에 대항하여 나타난 주기론이라는 철학 사상이 등장하였다는 사상사의 새로운 전개를 들 수 있다. 여기에 명나라 구우의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 ■ 심화 내용 연구

## \* 이생과 최랑(최씨녀)의 성격 비교

|                  | 이생                    | 최랑(최씨녀, 아내, 최여인)                  |
|------------------|-----------------------|-----------------------------------|
| 흥건적 침입에 대한 대처 방식 |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혼자 도망침 | 도적에 맞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 비참한 죽음을 당함 |
| 성격               | 소극적, 비열함              | 적극적, 가치관이 뚜렷하고 용기가 강함             |

## \* ‘이생규장전’의 전기소설(傳奇小說)적 특징과 초현실적 내용에 반영된 작가의 의도

김시습은 자신의 뛰어난 역량에 비해 소외된 지식인으로서 삶을 살아왔으며, 특히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세상을 등지고 은거하면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김시습의 욕망과 꿈은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김시습은 이 작품에 초현실적인 내용을 담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산 자와 죽은 자의 사랑은 살아있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독자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어 김시습이 생각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인가를 잘 전달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김시습이 살던 당대의 현실이 김시습의 이상과 꿈을 실현시킬 수 없었던 현실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김시습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상의 공간으로서 초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소설을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 참고 자료

## 1. 절정과 결말 부분을 통해서 본 이 작품의 갈등 양상

절정과 결말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이생과 아내의 사랑이 좌절되는 이유는 대부분 두 사람의 내부적 요인보다 두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삽입시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아내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두 사람의 이별이 그러하고, 아내가 이생과 헤어져 저승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이승과 저승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작품에 보이는 갈등 양상은 대체로 외부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내를 저승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이생의 입장에서 갈등 양상을 파악한다면 주어진 운명에 맞서려는 인간과 운명 간의 갈등 양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의 비교

정명고등학교 오인석

|       | '이생규장전'                                                                                         | '만복사저포기'                                           |
|-------|-------------------------------------------------------------------------------------------------|----------------------------------------------------|
| 주제    |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                                                                            |                                                    |
| 구조    | 세 번의 만남과 이별(시련)의 반복                                                                             | 만남 → 이별                                            |
| 등장 인물 | 이생과 최씨녀(최랑)<br>• 재자가인(才子佳人)<br>• 최씨녀와 여인 모두 전란 때, 정절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뒤 영혼으로 환신하여 살아 있는 사람과 사랑을 나눔. | 양생과 여인                                             |
| 결말    | 최씨녀는 저승으로 떠나고 이생은 최씨녀의 장례를 지내준 뒤, 세상의 뜻을 잃고 죽음.                                                 | 여인이 양생의 곁을 떠나고, 여인은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환생함. 양생은 은거하며 살아감. |

### ■ 작가 소개

김시습